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최현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50
----------	------

발의연월일: 2023년 9월 일

발의자: 최현백, 이준배, 박기범, 박경희
성해련, 이군수, 윤혜선, 강상태
서은경

(이상 9명)

□ 제안이유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8월 30일부터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출시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한다고 발표함.
- 정부는 수익공유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혼희망타운 분양 당시 1.3% 고정금리로 안내되었던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에 대하여 급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게 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정책 추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1.3%로 원상 복귀할 것을 촉구함.

□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고정금

리 이자율 1.3%’, 원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국 지방의회, 전국 시·군·구
- 붙임 : 신희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1부.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

신혼희망타운은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과 보육, 교육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이다.

2019년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의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1.3% 저렴한 고정금리 적용으로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당시 1.3% 안내되었던 고정금리를 1.6%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신혼희망타운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는 현실적 금리와 비교할 경우 저금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처분손익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최대 50%의 매도차익을 공유해야 하는 ‘조건부 금리’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매도차익 공유 비율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대출금리만 인상해 전국 23개 단지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인 6,021세대는 인상된 금리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복지가 위태롭게 되었으며, 신혼희망타운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는 정부를 믿고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의 약속된 고정금리가 하루아침에 인상되어 세대당 약 2,00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의 가계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돌연 고정금리 인상은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입주일까지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확산으로 입주 예정자인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는 생계를 접어두고 거리로 나와 시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정금리 약속도 어기고, 신혼희망타운 사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 현 정부의 ‘신혼 기만 금리 인상’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는 당장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기존 1.3%로 원상복귀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정책 추진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서 금리인상 발표를 철회하기 바라며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고정금리 이자율 1.3%’, 원상 복귀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하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 고정금리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월 일

성남시의회